

2025.02.21.(금) 증권사리포트

두산

전자 BG 어닝 서프라이즈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기대 이상의 N사향 초도 매출로 전자 BG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전자 BG사업부 24년 4분기 매출액은 3,360억원 (+72.2% YoY, +34.6% QoQ)으로 최근 상향 조정했던 당사 추정치 3,000억원 마저 초과 달성했다. 전자 BG 영업이익은 448억원 (흑전 YoY, +50.8% QoQ)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률은 13.3%로 3분기 11.9% 대비 크게 개선됐다. 4분기 매출 신장은 N사향 신규 양산 매출이 주도했다. 4분기 N사향 소재 매출만 약 1,000억원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 개선도 이어졌다.

25년 1분기 N사향 매출만 1,500억원 이상 달성 전망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N사향 1월 매출 강도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밝혔다. 1분기 N사향 월평균 매출은 500억원으로 추정되며 분기 1,500억원 이상 달성 가능해 보인다. 이를 연환산하면 6,000억원에 달한다. 전자 BG의 25년 1분기 매출액은 3,550억원 (+90.3% YoY), 영업이익 540억원 (OP마진 15.2%)로 예상된다.

논란이 될 수 있었던 25년 가이드선스와 이에 대한 사측의 적극적인 해명

전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25년 전자 BG 경영 계획 (매출 1조 500억원)은 시장 기대치 1.3조 이상을 크게 하회하며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었다. 사측은 이에 대해 1)지난 9월에 수립된 25년 경영 목표치이며, 2)11월부터 양산이 시작된 N사 물량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경영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사업 계획의 일관성과 사업부간 다양한 이해 관계는 이해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25년 전자BG 매출 1.39조원으로 상향 / 목표주가 45만원으로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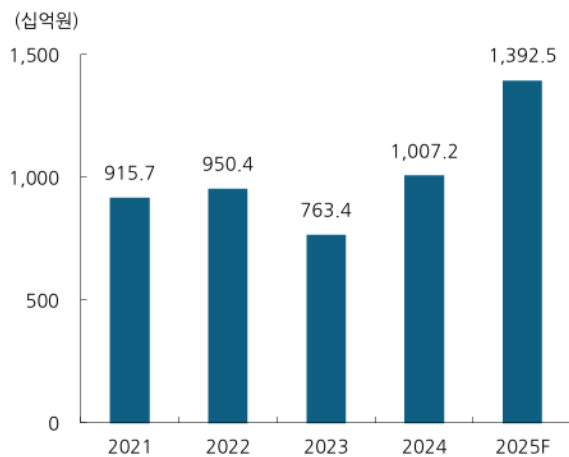
전자 BG 25F 매출 1.39조원 (+34.7% YoY), 영업이익 2,100억원 (+62.4% YoY, OPM 15.1%)로 상향 조정한다.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전자 BG가치는 4.5조원으로 평가한다. 적용 멀티플은 EMC에 20% 할증했다. N사 단독 공급에 이어 ASIC 신규 고객 확대는 멀티플 확장 요인이다. 25년 이익의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목표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종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2,851	16,996	19,130	18,133	19,376
영업이익	921	1,126	1,436	1,004	1,380
영업이익률(%)	7.2	6.6	7.5	5.5	7.1
세전이익	593	-286	451	403	1,01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04	-696	-388	-63	27
EPS(원)	11,812	-42,673	-24,026	-5,275	1,176
증감률(%)	흑전	적전	적지	적지	흑전
ROE(%)	10.9	-36.0	-22.7	-4.0	1.8
PER(배)	10.0	-1.9	-3.9	-67.7	303.6
PBR(배)	1.2	1.0	1.2	5.0	5.0
EV/EBITDA(배)	5.6	4.0	2.7	5.7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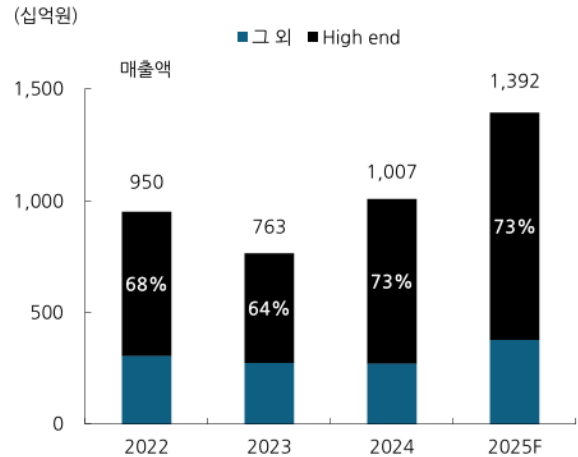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1 전자 BG 사업부 매출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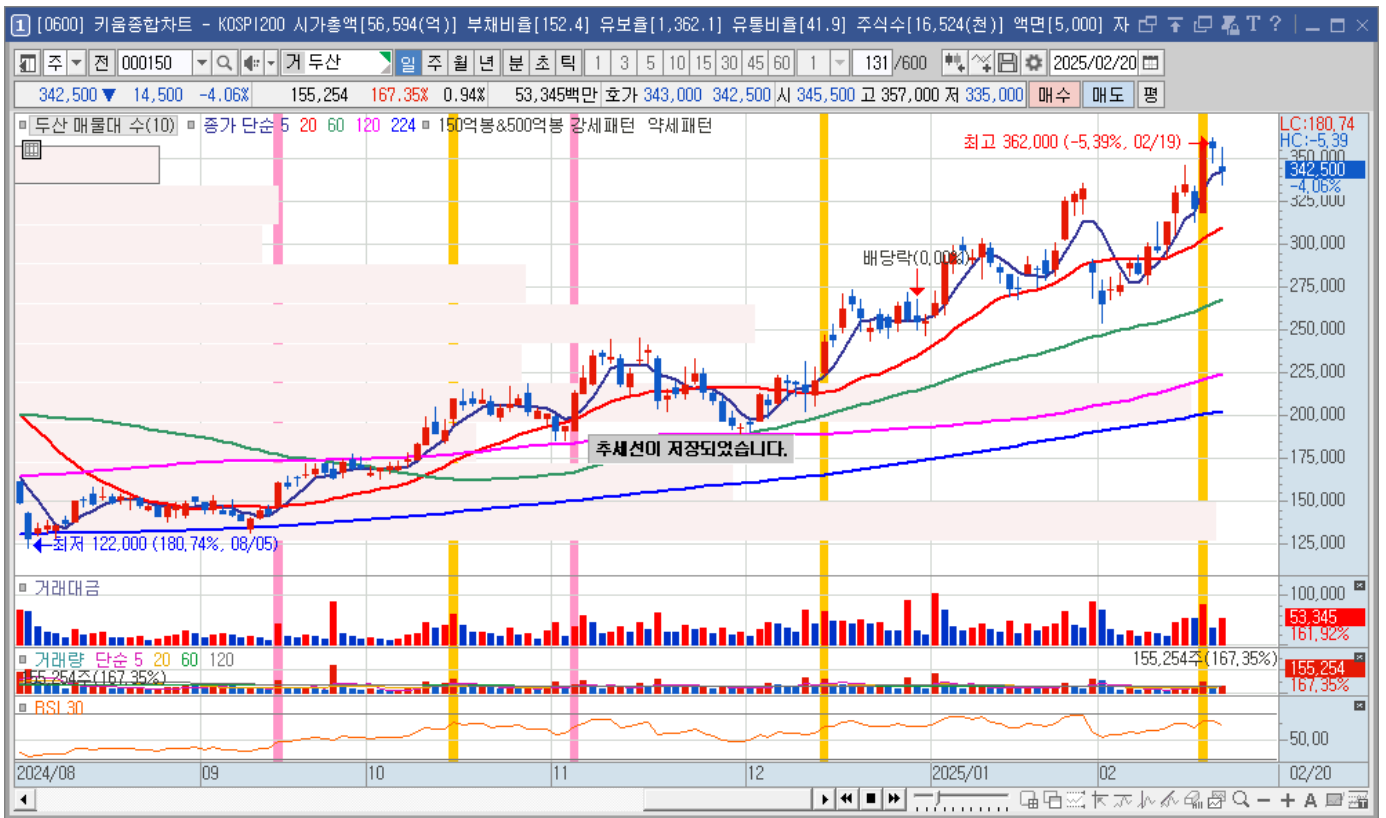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2 전자 BG 전체 매출액 대비 High end 비중



자료: 두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풍산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

[출처] NH투자증권 이재광 애널리스트

2024년 방산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24년 매출 4.5조원(+10.4%), 영업이익 3,240억원(+41.6%, 영업이익률 7.1%)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이는 방산 부문의 실적 호조 영향이 컸음. 방산 매출은 1.2조원(+19.2%), 영업이익은 2,530억원(+63.5%,

영업이익율 21.4%)을 기록,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에 따른 글로벌 포탄 수요 증가 때문
올해도 실적 성장 이어갈 전망. 사측은 방산 매출 가이드스 1조 2,580억원(+6.7% y-y) 제시. 건조한 내수
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 지속 전망. 신동 판매량 가이드스도 전년비 3.6% 증가하는 18.5만톤 제시. 가이드스
반영한 수익 추정치 조정으로 목표주가 86,000원으로 기존대비 7.5% 상향

방위산업 이익이 74% 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상대적 저평가

3년 평균 영업이익 비중(별도) 방산 74%이고 구리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수준의 구리
가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올해도 방산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0% 수준일 것.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동종업 대비 심한 저평가라고 판단. 글로벌(한국포함) 방위산업주 평균 12개월 선
행 PER이 약 20배 수준인데 비해 동사는 7~8배 수준에 거래 중

	2023	2024P	2025F	2026F
매출액	4,125	4,554	5,110	5,091
증감률	-5.7	10.4	12.2	-0.4
영업이익	229	324	366	391
증감률	-1.3	41.6	13.2	6.7
영업이익률	5.5	7.1	7.2	7.7
(지배지분)순이익	156	236	254	273
EPS	5,582	8,422	9,068	9,734
증감률	-10.7	50.9	7.7	7.3
PER	7.0	5.9	6.7	6.3
PBR	0.6	0.6	0.7	0.6
EV/EBITDA	4.3	4.0	4.3	3.6
ROE	8.2	11.4	11.1	10.9
부채비율	86.2	76.9	70.5	64.1
순차입금	281	331	314	53

단위: 십억원, %, 원, 배



오리온

밸류에이션 부담 낮아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작년 비우호적 환경에서 선방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45,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조 1,043억원(+6.6% yoy), 5,436억원(+10.4% yoy)을 기록했다. 코코아와 설탕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존재했지만, 판매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국내보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외형과 이익 개선폭이 컸다.

올해도 국내외 고른 성장 기대

올해 연결 매출액은 3조 3,506억원(+7.9% yoy), 영업이익은 5,881억원(+8.2% yoy)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663억원(+5.2% yoy), 1,843억원(+3.3% yoy)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 및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가격 인상 효과와 가성비 제품군 확대로 실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법인 매출은 1조 3,629억원(+7.3% yoy), 영업이익은 2,701억원(+10.7% yoy)으로 예상된다. 신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간식점, 벌크채널 등 성장성이 높은 유통망 입점을 강화하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파이 시장 점유율은 약 40%로 1위다. 반면 비스킷은 10% 초반, 스낵은 10% 미만으로 낮아 중국 제과 시장에서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된다. 베트남 법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678억원(+10.3% yoy), 1,103억원(+10.1% yoy)으로 예상된다. 파이와 스낵류 판매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연풍 공장 신·증축이 완료되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법인도 하반기 파이 생산 라인 약 30% 증설에 따라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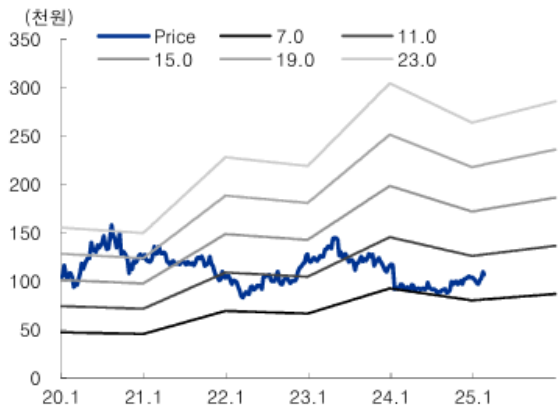
주가 회복세 당분간 이어질 듯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PER 9.4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인 10.7배 대비 밸류에이션부담이 낮다. 성장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주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873	2,912	3,104	3,351	3,630
영업이익	467	492	544	588	638
세전이익	487	520	692	609	663
지배주주순이익	392	377	524	454	491
EPS(원)	9,924	9,527	13,244	11,474	12,429
증가율(%)	52.2	-4.0	39.0	-13.4	8.3
영업이익률(%)	16.3	16.9	17.5	17.5	17.6
순이익률(%)	13.9	13.2	17.2	13.8	13.7
ROE(%)	16.5	13.9	16.7	12.7	12.5
PER	12.9	12.2	7.7	9.4	8.7
PBR	2.0	1.6	1.2	1.1	1.0
EV/EBITDA	6.8	5.5	4.6	4.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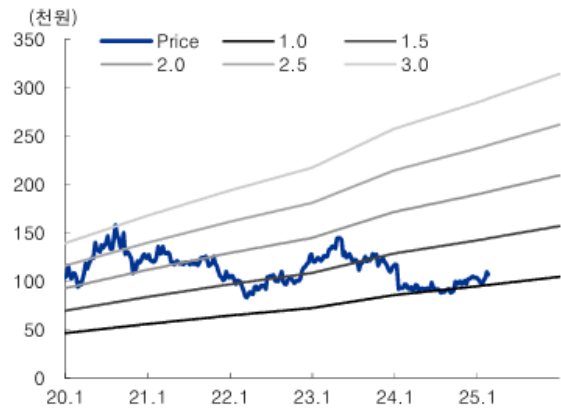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오리온 Fwd PE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2. 오리온 Fwd PB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세아베스틸지주

멀리서 길게 보면 희극

[출처]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애널리스트

곳간이 넉넉해지길 기다리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배당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 4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비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 해소가 필요

수요 부진, 일회성 비용, 저가 수입강재와 경쟁 심화의 삼중고

4분기 영업이익은 -500억원(적자전환 QoQ, 이하 QoQ)으로 시장 기대치(254억원)를 크게 하회. 자동차 및 산업 기계 부문의 수요 감소, 제품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재고평가손실, 노동 관련 일회성 비용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견조한 흐름 유지. 1) '25년 1분기 실적 회복(전분기대비)에 대한 베팅, 2) 높은 배당 매력, 3) 중장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형국. 1분기 실적은 판매량 증가 및 스프레드 개선, 일회성 비용 발생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81억원(세아베스틸 161억원, 창원특수강 85억원, 항공방산소재 35억원)의 영업이익 달성할 전망

배당은 일반주주 1,200원, 특수관계인 1,000원으로 4년 연속 차등배당 결정. 배당수익률 6.2%(배당기준일 '25년 3월 28일). 최소배당금 1,000원 기준 배당수익률은 5.2%. 신사업 매출 비중은 현재 10%를 하회하나 '27년부터 관련 매출 본격 발생하기 시작하며 '30년에는 매출 비중 25%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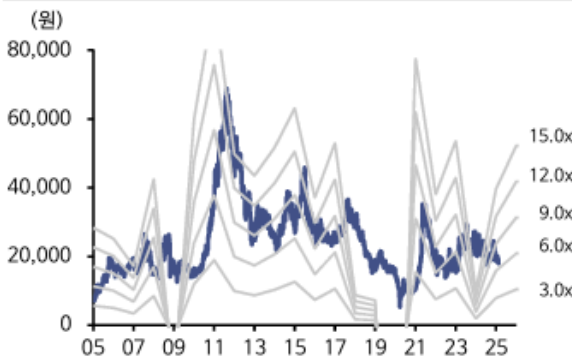
Valuation & Risk: '27년 PBR 0.7배 달성 목표. 현재는 0.3배 수준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실적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 24,000원(기존 25,000원)으로 하향. 글로벌 확장과 고부가가치 제품군 강화 통해 '26년 이후 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됨. PBR(주가순자산비율) 0.7배 달성을 위해서는 신사업에서의 의미있는 실적 달성이 선행되어야 함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4,386.3	127.9	91.0	6.4	4.9	0.3	6.4	7.4
2023	4,083.5	196.7	128.3	6.9	6.7	0.5	5.9	4.8
2024F	3,636.1	59.4	23.8	29.8	1.2	0.4	8.9	6.1
2025F	3,687.6	131.3	94.8	7.3	4.9	0.4	6.2	6.2
2026F	3,857.8	168.6	124.8	5.5	6.4	0.3	5.3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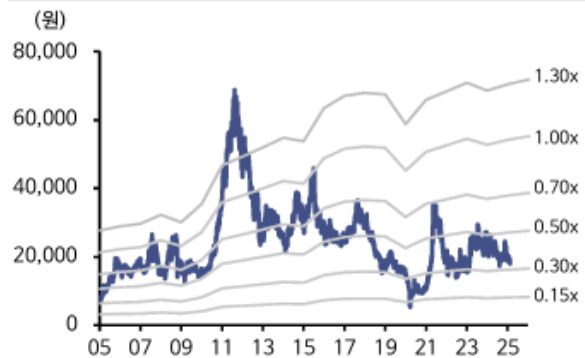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세아베스틸지주 12개월 선행 PER 밴드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세아베스틸지주 12개월 선행 PBR 밴드



자료: QuantiWise, 신한투자증권



DL
 비핵심 자산/사업들에 대한 매각 진행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재무구조 개선 추진

DL은 Kraton/Cariflex 인수를 위하여 대규모 차입을 하였다.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작년 경쟁사 대비 견고한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올해 추정 기준 PBR 0.2배 수준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증설을 완료한 Cariflex의 영업가치만으로도 현재 동사의 시가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작년부터 비핵심 자산/사업들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1) 우선 작년 4분기에 본사 광화문 디타워를 매각 완료하였다. 이에 약 1,30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며 재무 건정성이 강화되었다. 2) 또한 동사는 글래드 호텔 3곳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메종 글래드 제주 등 글래호텔앤리조트가 보유한 전체 호텔뿐만 아니라 운영권, 영업권, 브랜드 등도 동반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투자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매각가는 6,000억원 이상(일부 DL이앤씨 지분 포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또한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사는 DL에너지의 대다수 사업부문을 매각할 계획이다. 조 단위 규모의 카브아웃 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주력인 사업들의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재무구조 개선 또는 주력 사업 강화에 현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흑자전환 전망

동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1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큰 폭의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우선 전 분기 발생한 Kraton/DL케미칼의 일회성 비용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L에너지의 성수기 효과가 예상되고, Kraton은 전 분기에 나타난 CTO/부타디엔 역래깅 효과가 제거되고, 고객사 재고 축적으로 인한 가동률 개선으로 적자를 크게 줄일 전망이며, DL케미칼은 주력 제품인 PB의 스프레드 호조세 지속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43.1%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5,174	5,018	5,617	5,649	5,736
영업이익	284	151	414	325	427
세전이익	122	-173	160	206	345
지배주주순이익	70	-133	108	127	222
EPS(원)	3,079	-5,894	4,790	5,593	9,822
증가율(%)	-91.1	-291.4	-181.3	16.8	75.6
영업이익률(%)	5.5	3.0	7.4	5.8	7.4
순이익률(%)	1.9	-2.4	2.5	2.9	4.7
ROE(%)	1.8	-3.4	2.8	3.2	5.4
PER	19.2	-8.7	6.6	6.1	3.5
PBR	0.3	0.3	0.2	0.2	0.2
EV/EBITDA	9.8	11.4	7.3	8.5	7.2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필옵틱스

관심이 이어지는 이유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4Q 잠정실적

지난 2월 10일 발표된 4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되었다. 4Q24 매출액은 1,491억원, 영업이익 120억원으로 전년대비 &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3.5월에 수주한 디스플레이 제조장비가 실적에 반영되었으며, 자회사 실적개선에 기인한다. 24년 연간으로도 매출액 4,109억원, 영업이익 13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7.0%, 흑자 전환으로 실적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유리기판에서 주목받는 이유!

유리기판은 반도체 칩의 인터포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터포저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유기와 실리콘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는 표면이 평탄하지 않아 미세 배선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리콘은 열전도율이 높고 대면적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Si반도체에서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리기판이 초기 개화 시장이라는 점에서 장비기업들, 특히 소재인 유리를 가공하는 업체가 Key player 역할을 할 것이다. Glass를 가공하는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리는 레이저로 가공된다. 이에 해당되는 장비는 유리기판에 hole를 뚫는 TGV, 최종적으로 유리기판을 자리는 Singulation 장비 등이 있다.

동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 유리가공에 대한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유리기판 양산을 선제적으로 진출하려는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IDM, 패키징, 유리 기업들이 산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후발주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적용되며,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는 장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연초대비 150%가 넘는 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신규산업의 Key player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유사한 시가총액 테크 기업대비 낮다는 점 등

을 고려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계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1,889	2,308	3,040	3,000
영업이익	18	-105	181	103
지배순이익	46	-43	18	-80
PER	50.5	-57.4	102.2	-28.1
PBR	2.8	2.7	1.9	1.4
EV/EBITDA	34.3	-81.4	12.7	13.3
ROE	6.2	-4.6	1.8	-6.2

자료: 유안타증권





온코크로스

한국의 Recursion Pharmaceutical

[출처] SK투자증권 허선재 애널리스트

비교적 빠른 수익화가 가능한 AI기반의 신약개발 기업

▶ 온코크로스는 15년 설립, 2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AI기반의 신약개발 기업이다. 주력 사업은 대부분의 AI신약개발 업체가 집중하고 있는 초기단계의 후보물질 발굴이 아닌 임상시험 단계에서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과 약물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성이 검증되어 임상 단계까지 도달한 약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익화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 동사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Recursion Pharmaceutical (Ticker: RXXR, 시총 6조원)과 사업모델이 가장 유사하며 RXXR는 Recursion OS플랫폼을 통해 '페노타입(이미지 기반) 분석'을 사용하지만 동사는 Raptor AI를 통해 '유전자 발현 패턴(RNA전사체 증감 추적)분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이가 발생한다. 두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며 더욱 정밀한 AI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 지금 온코크로스에 주목할만한 이유는 24년까지 에스티팜, 동화약품, JW중외제약 등 국내 제약사와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후 올해부터는 ①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②첫 해외 약물평가 서비스 계약 체결을 통한 본격적인 해외 매출 발생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탄탄한 수익화 모델 구축: 약물평가 서비스 □ 공동 연구개발 □ 자체 개발 의약품

I. 약물평가 서비스: 제약/바이오 고객사들이 발견한 신약 후보물질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질환을 예측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약물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주는 단기 수익화 서비스이다. 1Q23 보령 (카나브) □ 2Q24 JW중외제약 (개발중인 신약 3종) □ 3Q24 카인사이언스(신약)과 신규 적응증 탐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시장에서 첫 약물평가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빠르면 연내 신규 고객사/계약 확보 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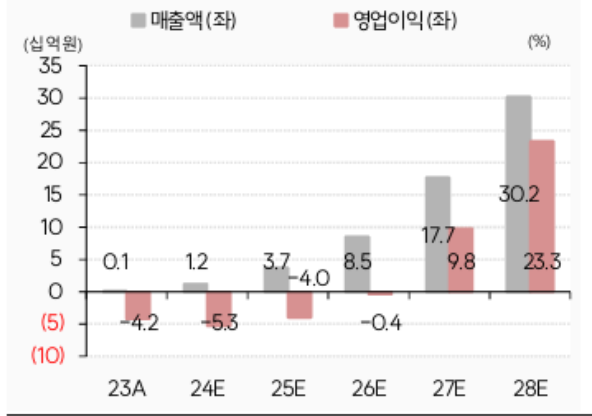
II. 공동 연구개발: 제약/바이오 고객사와 협업하여 적응증 확장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수익화 사업이다. 21년부터 시작된 JW중외제약, 동화약품, 대웅제약, 4P파마 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빠르면 연내 유의미한 중간 연구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을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추가적인 신규 고객사/계약 확보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III. 자체 개발 의약품: 동사의 Raptor AI플랫폼 + 자체 연구랩을 활용해서 직접 신약 발굴/임상을 진행하는 장기 수익화 사업으로 현재 총 3개의 파이프라인 ①근감소증 치료제 ②항암제 ③취장암 치료제를 진행중이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취장암 치료제에 주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H25 연구자 주도 임상 종료 후 2H25 연구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필연적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AI 신약개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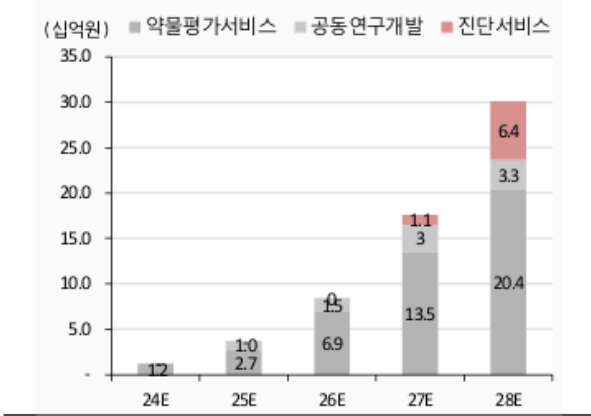
AI신약 개발 시장은 ①기술 발전 ②정부정책 ③빅파마들의 수익성 문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AI신약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들은 꾸준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격적으로 AI를 도입해 신약개발/기존약물의 적응증 확장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기존의 신약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사를 포함한 국내외 AI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온코크로스 연간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온코크로스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온코크로스 주요 연혁

2021/10	공동연구계약 체결 - 프랑스 4P Pharma
2022/01	공동연구계약 체결 - 동화약품
2022/03	공동연구계약 체결 - JW 중외제약
2022/10	공동연구계약 체결 - 스위스 Alphamol Science
2023/03	공동연구계약 체결 - 보령
2024/04	약물평가서비스 계약 체결 - JW 중외제약
2024/07	약물평가서비스 계약 체결 - 카인사이언스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신약개발 주요 단계별 특징

항목	후보물질 탐색	약물 적응증 확장
개발 기간	10~15년	3~6년
개발 비용	10% 미만	30~50% 이상
성공 확률	20~30억 달러	~10억 달러
규제 승인	FDA 모든 단계	일부 임상 진행 시 승인
리스크	높은 실패율	기존 데이터에 따라 비교적 안전
대표 기업	전통 제약사 (화이자 등)	Recursion, 온코크로스 등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온코크로스 Raptor AI 플랫폼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온코크로스 주요 레퍼런스



자료: 온코크로스, SK 증권

13,700 ▲ 900 +7.03% 20,785,806 1,034.63% 74.94% 300,625백만 호가 13,710 13,700 시 12,920 고 16,100 저 12,630 매수 매도 평

